전북출신 대학생 멘토단

도내 고교생 진로진학 멘토링

내일부터 5일까지 익산 · 군산 · 전주서 희망 고교생 대상

도내 고교생들의 진로진학 고민을 상담해주기 위해 전북출신 대학생 언니 형들이 멘토로 나선다.

도교육청은 대학생 멘토 초청 학과별 진로 멘토링을 내일부터 5일까지 익산, 군산, 전주에서 각각 진행한다고 밝혔다.

멘토단은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67명으로 구성됐으며 익산·군산·전주 각 지역별 희망 고교생 100~200여명 등 총 4백여명을 대상으로 학과별 진로진학 상담을 해준다.

첫날인 3일에는 익산 원광대 60주년 기념관에서, 둘째날인 4일에는 군산대학교 황룡문화관에서,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전주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각각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은 오전에는 지식·경험의 공유를 위해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지적 호기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멘토단의 TED식 공감콘서트 특강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멘토-멘티 소그룹 토론이 멘토를 바꿔가며 2차례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입제도 및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고교생들의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급증해 학과별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학과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의 기준과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진로 선택과 목표 설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고교 1학년생과 역사동아리 교사 각각 17명, 전문강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30일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 중국 대련에 도착해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된 여순감옥, 재판을 받았던 관동법원지구를 탐방하고 있다.

도교육청, '사제동행 역사체험학교' 운영

전북도내 고교생과 역사동아리 교사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안중근 루트 탐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항일 역사유적지 탐방을 통해 현장 역사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지난달 30일부터 4박5일간 '사제동행 역사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교 1학년생과 역사동아리 교사 각각 17명, 전문강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30일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 중국 대련에 도착해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된 여순감옥, 재판을 받았던 관동법원지구를 탐방하고 있다.

다음날인 31일에는 장춘으로 이동해 백두산 천지와 장백폭포를 둘러봤고 1일 용정 윤동주 생가와 대성중학교, 일송정, 명동교회와 소학교를 답사한다.

특히 하얼빈역에 도착해 안중근 의사 의거 현장을 답사하는 한편 원일본영사관터, 동북항일열사기념관, 안중근의사 기념관, 정율성 기념관 등을 차례로 둘러볼 예정이다.

마지막 날 3일 731석균부대를 답사한 뒤 하얼빈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평화의 소녀상 알리기 캠페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1일 전주 기억의 광장(풍남문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직원 및 청소년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진행된 행사로, 참석자들은 소녀상에 대한 묵념 및 헌화를 시작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화의 소녀상 알리기에 나섰다.

또한, 청소년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에 공감하고자 소녀상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정성들여 써온 편지글을 낭독하며 평화의 소녀상에 담긴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간이 됐다.

캠페인과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막연히 듣기만 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고, 역사적으로 이런 슬픈 사실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며 "평화의 소녀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알리는데 더욱 열심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해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알려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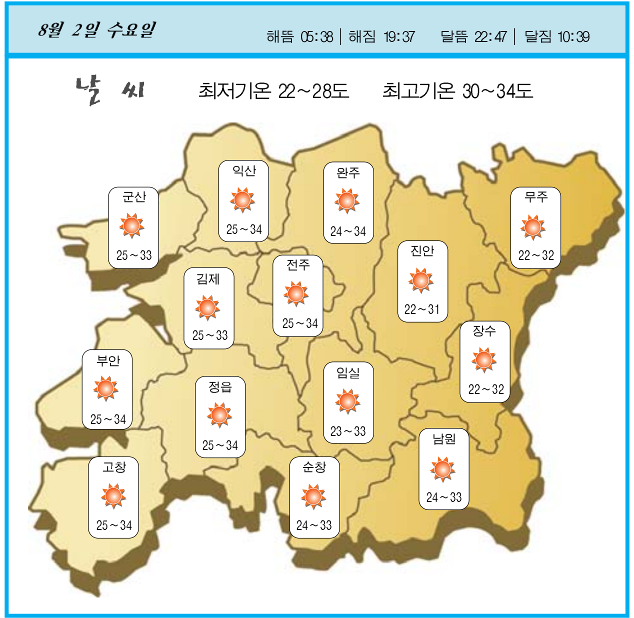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일 향교길 도자기갤러리에서 학교장 및 유관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위기청소년 23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프로그램: 꿈멘토와 꿈꾸다'를 운영했다.

'꿈멘토와 꿈꾸다'는 직업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꿈멘토의 생생한 직업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참여한 청소년들은 꿈멘토인 국기순 도예가를 직접만나 도예가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하고, 도자기를 빚는 체험을 실시했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번 여름 방학에는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 전주만의 특색을 살려 '한옥마을, 도자기, 꿈, 스토리'를 키워드로 하는 직업체험을 통해 도자기도 빚고, 꿈도 빚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전북대-중국연변대

식품공학 인재양성 '맞손'

100명 규모 합작학과 설립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중국 연변대학과 식품공학 분야 인재양성에 손을 맞잡았다.

전북대는 1일 연변대학 내에 식품공학 분야 합작학과를 설립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중외합작프로그램이 중국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대는 연변대학 내에 정원 100명 규모의 식품공학 관련 학과를 설립하고 오는 내년 9월부터 식품공학 및 동물생명 분야 교수진을 파견해 전체 교과목 강의 1/3을 담당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대는 지난해 6월부터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진을 연변대학에 파견해 중외합작 프로그램 논의를 시작했으며 최근 연변대학으로부터 중국 교육부 심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사업을 계기로 농생명 한문화 융합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중국 내 농식품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내 농생명 인프라 구축이라는 성과까지 거둘 수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은 "전북대가 식품관련 중국 명문 대학인 연변대학과 중외합작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것은 전북대의 농생명 연구 및 교육 분야가 세계 수준에 올라 있다고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우간다 등 개발도상국 우수 대학들에 전북대의 교육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합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호원대-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산학협력 협약

호원대학교가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1일 호원대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문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산업체 위탁 과제 및 위탁교육과정 운영, 자동차 튜닝 관련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협약을 통해 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호원대를 전북도내 튜닝 자격증 관련 4년제 대학으로 단일지정하고 호원대에서 자동차튜닝사 2급 검정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호원대는 관련 학과에 자동차 튜닝 관련 전공을 개설해 자동차튜닝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군산=장 현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